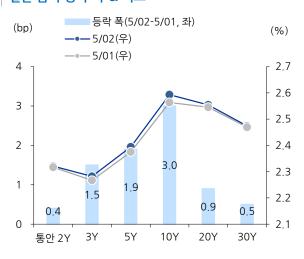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

	102							
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								
		5/6일	1D	1W	YTD			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282%	1.5	-5.9	-31.4		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593%	3.0	-3.0	-26.2		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1.1	29.6	28.2	25.9			
	3년 국채 선물(KTB)	107.80	-6.0	17.0	115.0			
	10년 국채선물(LKTB)	121.05	-28.0	25.0	413.0		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789%	-4.5	13.8	-45.0			
	미국채 10년물	4.297%	-4.8	12.2	-27.5		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0.8	51.1	52.4	33.3			
	독일국채 10년물	2.540%	2.6	1.5	17.7			
	호주국채 10년물	4.284%	6.7	14.3	-8.4		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
- 예상을 상회한 ISM 제조업 지수, 유가 급등 영향에 상 승한 미국채 금리 연동되며 약세 출발.
- 이후 정치 불확실성 속 약세폭 확대.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한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경기획재정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FOMC 앞둔 경계 속 장 초반 혼조세 부각. 단기물 강세 보였으나 30년물 약세가 두드러진 흐름.
- 이후 10년물 입찰 결과에서 강한 수요가 확인되자 10년물, 30년물 금리는 모두 즉각 하락 전환. 재무부 부장 관은 해당 결과에 대해 극찬하며 향후 입찰에 대한 자신감 또한 내비침.
- 한편 독일 기민기사연합 메르츠 대표는 초유의 2차 투표를 통해 아슬아슬하게 총리에 선출되었고, 해당 소식이후 독일 10년 금리는 반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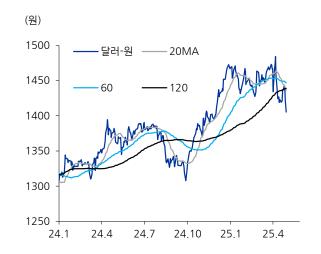


FX 8	FX & Commodity				
		5/6일	1D	1W	YTD
횐율	원/달러	1,405.30	-1.1%	-2.1%	-4.6%
	달러지수	99.28	-0.5%	0.1%	-8.5%
	달러/유로	1.137	0.5%	-0.2%	9.8%
	위안/달러(역외)	7.21	0.1%	-0.8%	-1.7%
	엔/달러	142,49	-0.8%	0.1%	-9.3%
	달러/파운드	1.337	0.6%	-0.3%	6.8%
	헤알/달러	5.71	0.4%	1.6%	-7.6%
상품	WTI 근월물(\$)	59.09	3.4%	-2.2%	-17.6%
	금 현물(\$)	3,431.71	3.0%	3.5%	30.8%
	구리 3개월물(\$)	9,365.50	1.7%	-0.1%	6.8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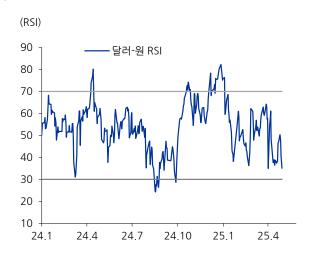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지난주 금요일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15.70원 급락한 1,402.90원에 마감. 종가 기준 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.
- 미중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, 장 초반 달러-원은 1,440원대에 진입하기도 했으나 오전 중 빠 르게 방향을 틀었음.
- 달러 약세 및 위안화/대만 달러 등 아시아 통화들이 일 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국내 연휴를 앞두고 포지션 정리 물량도 출회되면서 단숨에 1,400원대 진입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무역협상 불확실성 지속으로 하락.
-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일 트럼프 대통령은 2주 이내로 의약품에 관련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 언급. 반면 베센트 재무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주요 교역국과의 합의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.
- 국내 연휴 간 생보사들의 환혜지 부족 이슈로 급등했던 대만 달러는 다행히 상승세가 진정. 한 때 1,360원대에 진입했던 달러-원도 역외에서 1,370원대로 반등.
- 한편 1차 투표에서 총리 선출에 실패했던 독일은 2차 투표만에 메르츠 기민당 대표를 새 총리로 선임.